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5월 18일 (제74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천성보다 노력!

인천교회의 어느 장로가 “목사님, 어느 목사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아니야. 천성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커지지.”라고 말했다.

그 샘물이 나다. 내가 원래 이렇게 목청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루에닐곱 시간씩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대가 파열되고, 그것이 다시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쉼소리가 났고,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쉬지 않는 강한 목소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어디 나뿐인가. 명창들을 보면 득음하기 위해 꼭꼭아래서 소리를 지르며 피나는 연습을 한다. 대자연의 소리와 겨뤄 이긴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배우고 익혀 마침내 소리를 터득하고 명창이 되는 것이다. 천성(天性), 말 그대로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을 말한다. 나는 이 천성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운명은 바꿀 수 있어도 속명은 바꿀 수 없다고. 천성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력하면 제2의 천성이 만들어진다.

성경의 인물 중 베드로를 보자. 그는 다혈질이고 즉흥적이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갔고,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왔을 때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일도 있다. 그러나 그가 변했다. 물론 그의 변모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부단히 참고 인내하며 노력했다. 그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베드로후서 1장에 쓰인 그의 말을 들어보자.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베후1:5-7).

호박에 줄고어 수박은 안 되지만, 사람은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든 무한 노력하라.

거미줄만 걷지 말고 거미를 잡아라

지금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의 개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에 기도원의 낡은 건물들을 모두 헐고 신축공사를 통해 대성전을 비롯한 기도원의 모든 건물들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해외에서 몰려오는 목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도원 호텔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기도원 건물들은 건축한지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호텔도 이미 10년이 넘었다. 꼭 최근에 빈발하는 안전사고의 경각심에서가 아니라라도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의 내구성을 한층 더 확보해야할 시점이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을 위

를 만들어내는 거미를 잡는 것, 곧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조치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안전 확보의 노력을 꼭해 내지는 왜곡하여 어린 믿음들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하기가야 뉴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그 시절, 거기에도 분명 해방자나 방관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거나 단절되진 못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동조하고, 그

능을 기부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놓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도 있다. 기도원 개보수공사에 달려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그들,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이 지면을 빌어 기도원공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호남노회 목회자들, 교단 장로님들, 기도원 및 본부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지난 2012년, 우리는 기도원 뒷산을 오르며 영적 요양센터의 비전을 함께 하지



기도원 개보수공사에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자

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확충해야할 때 기도 하다.

지난달, 목사님은 시청광장집회를 위해 급식 차 기도원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이변 기회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파악하시고 공사에 착수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청광장집회를 연기해달라는 서울시의 협조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발견한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그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거미줄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거미줄만 걷어내는 일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거미줄

런 생각들을 전연시키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방자로, 방관자로 기록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으로 미끄러져갈 뿐이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내려가셔서 각종 공사를 통해 성산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진행될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진의를 흘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있어 어찌 약한 마귀가 가만 보고만 있겠는가마는, 그런데 이에 미혹되어 휩쓸리고 시험에 들곤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떤 생각과 말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가하면 생업을 뒤로 하고 자신의 재

앙있던가?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고 계신다. 따라서 목사님이 지금 기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믿는다. 기도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도원은 우리 성도들이 1년에도 여러 번 찾게 되는 우리의 성산이다.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안전과 편의를 확보한다는 게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공사과정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오는 여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변모된 기도원을 기대하며,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동참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일본집회

6월 2일(월) ~ 6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3:10~14)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해외선교 드림팀의 일원인 김성자 전도사는 70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미에 갈 때마다 커다란 가방에 고추장이며 햇반이며 갖가지 밀반찬을 챙겨 미국으로부터 날아옵니다. 어느 날,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한 김 전도사에게 “할멈은 왜 그 나이에 힘들게 이 일을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김 전도사는 일초도 망설임이 없이 “하늘의 상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얻지만, 하늘의 상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수상 타는 애들을 보면 남들과 다르게 공부에 열중합니다. 심지어 개근상을 타는 애들을 보면 아파 끙끙 앓으면서도 학교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노력하고 애써야 하늘의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심판하고 열 고을의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비웃거나 말거나 그것이 제 믿음이며, 소망이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9-30).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받을 상이 예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심었는가 주를 위해 얼마나 심었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상급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1-12).

초대교회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화형을 당하고, 목 베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순교자는 많습니니다. 그러나 순교는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순교도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얻어맞는 것, 교회 밖에 모른다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모두 주를 위해 당하는 수난입니다. 제가 이단의 괴수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 곧 내가 받을 큰 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욕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핍박이나 환난 중에도 죽기

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을

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정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빚책, 절제하는 자의 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절제하며 복음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고전9:18-27).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 의의 삶, 곧 복음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아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들의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7-8).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치면 주는 상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2-4).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든, 인내든, 절제든, 전도든, 구제든 드러나게 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선행상이나 전도상 등을 수여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정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들의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7-8).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치면 주는 상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2-4).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든, 인내든, 절제든, 전도든, 구제든 드러나게 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선행상이나 전도상 등을 수여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정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든, 인내든, 절제든, 전도든, 구제든 드러나게 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선행상이나 전도상 등을 수여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의 저자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자기 집에 가보니 3층 방의 벽에 달랑 상장 2개가 붙어있었습니다. 하나는 18세 때 성탄절에 거지에게 잠바를 벗어준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불어행 두개를 사서 준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나는 학생들

구원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자

에게 장학금도 주었고, 아파트를 지어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신학생의 학비를 도왔다. 또 교회를 지어 부흥도 시켰는데, 왜 고작 상이 이것뿐이냐?”고 따졌더니, “너는 땅에서 국민훈장도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도 받았고, 신학생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감사를 받았으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1-2). 사람들에게 청찬을 받기 위해 수고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쫓겨나 한 해 된 것은 그 날의 상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빌3:12-14). 고난과 핍박마저도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도 불사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롬8:18).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다 하나님께 아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이란 말이 있지요? 공로를 조사하여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 상(賞)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도 이것이 반드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위해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감동 글이라 옮겼습니다::

세월아 가라!

180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 침공을 시도하였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최신헌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역전의 노장 벨슨이 함대를 이끌면서 부하들에게 “영국은 그대들이 맡은 바 의무를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명령을 최후의 결전 직전에 하달하였습니다. 이 전투로 전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에 전투는 정말 치열하였습니다. 벨슨은 선봉에 서서 싸웠고, 영국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 벨슨이 총에 맞았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벨슨은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전투지휘를 계속하며 부하들을 격려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벨슨의 최후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선장은 수백 명의 승객을 배 안에 남겨둔 채 선원들과 함께 먼저 탈출하였습니다. 해경을 포함한 구조 관련 기관들은 허둥지둥하며 제대로 구조하지도 못하고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언론은 난무하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퍼들며 내고,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 집단이나 개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부 그룹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를 통해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자매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소속된 단체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선배나 후배, 동료에게 부담을 지운 적은 없는지, 남을 이기는 것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녀나 후배에게 교육한 적은 없는지 등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으로 남을 보듬고 역사 사지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 남에게 빛을 주는 촛불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남을 타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75% 정도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깨끗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질책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월호로 야기된 처절한 비통함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환골탈태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의 악령을 쫓아버리고 희망의 성령을 다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귀신아 가라!” 하고 외치는 것처럼,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라며 외치고 싶습니다. “세월아 가라!”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마지막 미역국

나는 뇌종양 말기 환자입니다.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은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이전 방사선 치료마저 의미가 없어지고, 죽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도, 미각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다가 눈이 퐁퐁 부어 들어오는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병수발느라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아이들은 교회도 안 가던 녀석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10년은 더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내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헤어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 며칠 후면 아내의 생일입니다. 인터넷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요리조리 검색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후회의 눈물이 납니다. 건강할 시간동안 아내의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내 손으로 끓여주기 못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박살날 것처럼 아프고 발악과 괴로움이 찾아왔지만 난 버텼었어요. 아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미역국을 끓여주어야 하니까요. 이윽고 아내의 생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미리 담가둔 미역을 꺼내고, 고기를 꺼냈다 참기름을 찾고... 그런데 간장이 보이지 않았습

니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하니...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찬장 구석에 박힌 소금을 꺼내서 미역국에 넣었습니다.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나는 맛을 볼 수 없어서 감으로 소금을 맞추어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미역국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역국의 첫 입맛을 보는 아내는 그만 엉엉 울고 말더라고요. 아이들도 먹자마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먹자마자 우셨고요. 맛있다고 묻자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라며 밥까지 말아서 모두 먹고 나가더군요.

내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가는 가족을 보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나간 후에 정리를 하다가 내가 넣은 소금통을 보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소금통에 들은 것은 소금이 아닌 설탕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 말 없이 맛있더라 나의 마지막 미역국을 기쁘게 먹어준 가족들...

가족이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여보게!
인도 속담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네.
자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 속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첫째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는 게으른 놈을 의미하지. 입만 벌리면 물이 있는데, 입 벌리가 싫어서 물을 못 먹는 놈 말이야.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임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26:15). 손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들어올리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다고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자들도 잡하는 게 있긴 하지. 바로 핑계를 잘 대더라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자들은 게으른 자기를 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뭇 때문에 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더라. 이 역시 성경 말씀에 있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26:13).

자네는 행여 직원을 뽑을 때나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 같은 자를 택하면 안 되네. 그런 자를

택하면 그들의 존재는 이에 조 같고, 눈에 연기 같기 때문이라네 (잠10:26). 이를 식초에다 담가보게. 이가 시큰거리고 아마도 다 부식되고 말 겠세. 또한 길을 가는데 눈에다 연기를 쏘아대면 어디가 어딘지 분별인을 하겠는가.
그리고 둘째 의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귀한 것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그러나 행복은 멀리 광당새가 아니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생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물고기에게 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매일 사는 물 속 말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뭇가 새로운 것, 뭇가 접해보지 못한 것에서 찾으려고 물속을 차고 나가려고 하지. 일말 말일세.
가끔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외의 성경공부를 한다고 다니다가 이상한 곳에 빠지는 것을 봤네. 물 밖에 뭇가 있나 하다가 당하는 봉변이라네. 그런 곳이 대개 처음에는 달콤하고 신선하거든. 그러나 결국 거긴 물 밖이라 화를 당하고 말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찌 되는지 뻔하지 않은가?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을 떠나면 벌레 밥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여보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네. 물고기 눈에 물이 안 보인다고 하더구먼. 우리 눈에 하나님도 보지 않지. 그러나 물고기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물고기 눈에 물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떠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물의 가치를 알고 존재를 알아야 하듯,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인간과 만물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나는 부디 자네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라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주변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네.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인터넷에 매우 놀라운 사진과 함께 뉴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속중인 건물 기울어져 붕괴위험]이었고, 함께 실린 사진에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하나가 피사의 사탑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오피스텔로 쓰기 위해 한창 신축중인 건물이었는데,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점점 균형을 잃고 기울더니 급기야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건설하는 도중에 건물이 기울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였지요.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튼튼한 기초 공사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완공시키려는 조급함과 규격보다 더 싼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욕심이 건축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를 소홀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처음에 설계했던 도면과는 전혀 다른, 해토티크로구나 나사를 법한 이상하고 위험한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기울어지고 붕괴 되듯,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기초에 충실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고 튼튼하게 쌓아올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朋友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분노, 허탈, 분열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자신의 신분과 의무를 잊은 선장과 사고 관련자들의 변명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허무하게 그들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에 참으로 맥이 빠진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가운데 생긴 수많은 잡음들은 언론을 타고 국민에게 스며들어 서로를 원망하고 질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유가족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슬프다 한들 유가족만큼 슬플 수 없고, 우리가 화난다 한들 그들보다 더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과 함께 조용히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시킬 수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도 서글픔도 하나님

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들의 회생이 헛되지 않도록 시작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진노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절절히 가슴아파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작하실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녹아진 유가족들의 마음을 짊어안으실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다시금 견고하게 하셔서 그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에 헛되지 않도록 뜻을 세워나가실 것이다.

시편 46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뉘를 알지 어다."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18만 5천명이 나 되는 앗수르, 산헤립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몰살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겪고, 이를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서서 찬양하며 불렀던 승리의 노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과 도움이 시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다. 분노, 두려움, 분쟁, 전쟁 앞에서 많은 말과 연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자!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말이다. 하나님이 직접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 애끓는 심정을 만져주시고 붙잡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과 긴급 상황에 대한 미비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늘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사65:24)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인영

renming@daum.net

Good New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 아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명령이 통신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격으로 인하여 통신선이 끊어져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은 통신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끊어진 전선을 이를 재료가 없어 달리 연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아군은 전멸을 당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그 때 한 통신병이

끊어진 통신선의 양쪽 끝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의 지원부대에 보냈습니다. 그 통신병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고마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화평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중보(仲保)'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화전이나 계약을 맺을 때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자유와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사랑이 기독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르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나 사랑이 기독교는 아니다. 흔히 기독교를 이웃사랑을 외치는 하나의 종교로 부각시킴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휴머니즘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기원전 3, 4백년에 중국의 묵자(墨子)는 겸애사상(兼愛思想)을 말하였고, 공자(孔子)는 인(仁)을, 석가모니는 자비(慈悲)를 각각 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외쳤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웃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예수는 한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1서의 요지다.

이웃만을 열심히 사랑한다면 수도자(修道者),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 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는 신앙인(信仰人)이 된다. 회개란 죄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운동이란 주님을 사랑하자는 운동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신 후 그의 양을 맡기셨다. 그 베드로는 제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었다. 모든 순교자는 제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사랑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사랑을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녹색식물 활용법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혹은 하루 종일 일 하느라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곳, 우리 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세집 중후군 또는 병든집중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치유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원인 제공자는 우리 인간들이다. 멋진 건물을 지었지만 실내에 있는 가구나 설비, 자재들은 천연물이 아닌 값싼 석유화학물질과 화학접착제로 만든 것을 사용하면서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집안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학물질로는 많이 들어본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티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실내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유기화학물질,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각종 독성물질을 호흡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내공기를 좋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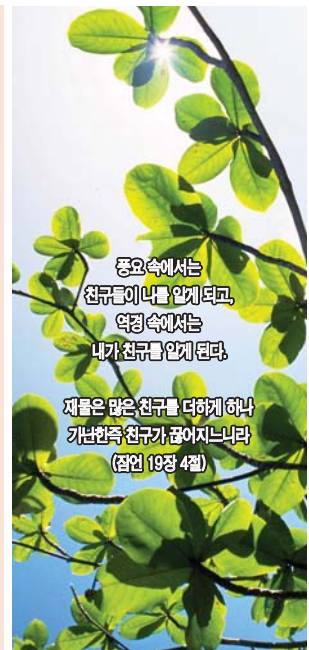
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 가습기, 음이온 발생기도 좋지만,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것은 녹색식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녹색식물은 실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거나 유해 전자파 중 전기파를 감소시키고, 가습기 역할과 음이온을 발생하므로 건강유지에도 좋다. 식물에 따라서는 진정, 살균작용을 한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흔히 추천되는 기능성 녹색식물 9종을 정리해본다.

1. 관음죽-암모니아와 클로로포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2. 네프롤레피스-실내 습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식물이다. 이 식물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면 사람이 지내기도 적절한 습도이다. 포름알데히드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3. 대나무야자- 습도조절과 유기물질 제거에 탁월하다.
4. 벤자민 고무나무- 유기물질과 오존 제거에 효과적이고 낮 동안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 공기정화에 좋다.
5. 인도고무나무- 실내 미세먼지 제거와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효과적.
6. 산세베리아- 음이온을 많이 내뿜고 이산화탄소 흡수하여 공기정화에 좋다.
7. 선인장 및 다육식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8. 스파티필름- 실내오존 제거율이 높다.
9. 아이비- 유기물질 특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효과적이고 담배연기인 미세먼지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풍요속에서는
천궁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속에서는
내가 천궁을 알게 된다.

재물은 많은 천궁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천궁이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4절)